

차티스트문학의 성격과 지위

허 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작방법과 문학사조에 관한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해명하는것은 우리 나라 문학사와 세계문학사에 대한 연구사업과 교수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그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차티스트문학은 19세기 전반기 영국에서 발생발전한 진보적문학으로서 그의 사회계급적성격과 문학사적지위에 대한 연구는 이 문학이 영국진보적문학의 발전에서 논 역할뿐아니라 동시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한 혁명적민주주의문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이바지하게 한다.

차티스트문학은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서의 사회계급적성격을 가지게 된다.

차티스트문학은 혁명적민주주의문학과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있지만 엄연히 구별되는 문학현상이다. 그것은 이 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차티스트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로 되는것은 우선 이 문학이 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이 주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사이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으로 바뀌어진 19세기 산업자본주의시기 영국의 새로운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선거법개정을 위한 무산대중의 차티스트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발전하였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차티스트운동은 1830년대~1850년대중엽 영국에서 산업노동자들이 일반선거권을 비롯하여 자기들의 사회정치적권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차터》(일명《헌장》, 그의 인민적성격을 반영하여 《인민헌장》이라고도 함)를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벌린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이며 이 운동참가자들을 차티스트라고 불렀다.

차티스트들은 공장과 마을을 비롯한 산업지구들과 공공장소들에서 자기들의 사회정치적요구가 반영된 《차터》를 채택하고 그를 지지성원하는 하층근로자들의 서명수집운동을 광범히 벌리였으며 부르조아국회에 찾아가 그것을 받아줄것을 청원하였다. 국회가 이것을 거절하자 차티스트들은 도처에서 파업과 집회, 시위를 벌리였으며 지어 폭동도 일으켰다. 반동통치배들은 차티스트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면서 조직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극형에 처하였다.

차티스트들은 산업노동자들의 비참한 사회적처지를 폭로하고 근로자들을 《차터》의 실현을 위한 운동으로 불러일으키면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고무격려하여 시와 소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차티스트문학이었다.

차티스트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로 되는것은 또한 이 문학창작자들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이며 그들의 세계관에서 지배적인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이였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차티스트문학의 대표자들인 엘프레드 페늘, 토마스 쿠퍼(1815—1892), 윌리엄 린튼(1812—1897), 에드워드 미드, 줄리언 하니(1817—1897)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은 거의다 직접 노동생활을 한 근로자들이였다. 토마스 쿠퍼는 구두수리공으로 일하였고 브레이위치, 윌리엄 존즈 등도 다 노동자들이였다.

물론 차티스트문학의 발전에서 주역을 담당하였던 작가들가운데는 어니스트 존즈(1819—1869)와 같은 귀족부르조아출신의 지식인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의 경우에도 그들은 무산자들의 비참한 사회적처지에 대한 단순한 동정 다시말하여

부르쥬아적인도주의가 아니라 산업프로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강요된 가혹한 노예적로동을 폭로하고 불합리한 자본주의 사회현실을 비판하여나섰다.

어니스트 존즈는 귀족가문에서 출생하여 부르쥬아법률교육을 받았으나 자기 계급을 떠나 1845년부터 차티스트운동에 참가하여 이 운동의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는 1848년에 차티스트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빠리에 가서 공산주의자동맹의 중앙위원회에 들어갔으며 여러해동안 맑스와 엥겔스의 친근한 정치적동맹자로 있었다.

물론 차티스트작가라고 하여 그들의 세계관적기초에 무산자들의 계급의식만이 자리잡고있는것은 아니었다. 차티스트운동의 초기 차티스트작가들속에는 부르쥬아민주주의를 세계관적기초로 하는 소부르쥬아작가들도 포함되어있었고 프로레타리아트출신의 작가들속에도 부르쥬아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부르쥬아지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종교적박애를 호소하는것과 같이 노동자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작품들을 내놓은 작가들도 있었다. 이 문학의 말기에 와서는 반동통치배들의 탄압에 굴복하여 개량주의적 경향으로 굴러떨어진 작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차티스트들의 세계관속에는 노동력박애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무산계급의 사상감정과 지향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1848년 4월 4일 런던에서 소집된 차티스트운동대회에서 노동자들은 국회에 보낼 청원서에 《로동은 모든 재부의 유일한 원천이다.》라고 명기한 다음 경찰의 폭압을 박차고 의회제로 시위행진을 시도하였다.

19세기 중엽 차티스트운동이 고조되면서 산업자본가들과 산업노동자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 반동통치배들의 악랄한 정치적탄압이 강화되자 차티스트운동내에 남아있던 소부르쥬아출신의 차티스트들은 이 운동에서 떨어져나갔다.

그러나 로동계급출신의 전실한 차티스트들은 대오에 남아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차티스트들의 대오를 더욱 순결한 프로레타리아트대오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계급의식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로 되었다.

차티스트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로 되는것은 또한 이 문학이 산업노동자들의 대중적정치투쟁을 사회적사적환경으로 하고 그들의 사상감정을 대변해나선 노동자작가들에 의하여 직접 씌여진것만큼 무산자들의 사상감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차티스트문학작품들에는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로동의 가혹성과 로동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착취에 대한 증오와 규탄의 감정이 동시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 비할바없이 강하게 반영되어있었다. 그것은 부르쥬아인도주의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한 사회적인식으로부터 나오는 무산자들의 계급의식의 발현이었다.

어니스트 존즈의 풍자시 《하층계급의 노래》, 쉐랄드 매씨의 서정시 《48년도 사람들》, 제임즈 린튼의 서정시 《인민의 쉼기》 그리고 토마스 마틴 윌러의 장편소설 《해빛과 그늘》 등 많은 작품들에 형상된 착취와 압박에 대한 항거와 투쟁정신, 강한 의지와 신념, 호소성 등은 동시대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무산자들의 계급의식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이와 반면에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반영한 문학으로서 급진적부르쥬아 및 소부르쥬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부르쥬아민주주의성격의 문학이다.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19세기 30~40년대 서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창작되었으며 19세기 50~60년대 와서 로씨야에서 하나의 뚜렷한 문학조류를 이루었다.

로씨야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체르니шев스키는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낡고 썩은 로씨야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하고 그것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들은 노동자, 농민 등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출신이 아니라 소부르조아 또는 귀족출신이며 그들의 활동도 근로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우는 것으로 되지 못하고 주로 경제, 문화계몽활동의 테두리에 머물러있었다.

로씨야혁명적민주주의문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19세기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사회계급적기초는 급진적부르조아지와 소부르조아지, 그밖에 노동자, 농민 그리고 근로출신의 일부 선진적인 지식인들이며 그들의 세계관적기초에는 부르조아민주주의가 놓여있다.

영국차티스트문학은 진보적문학조류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차티스트문학은 당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출현하지 못한 사회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과학적사회주의사상으로 안받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차티스트문학에는 사회적대립과 충돌이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치열한 계급투쟁의 형태를 띠고 새롭게 벌어지기 시작하던 19세기 전반기 영국의 객관적인 사회력사적현실이 반영되어있으며 노동계급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력사무대에 진출하여 진통을 겪으며 바야흐로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길로 나아가고있던 당시 노동운동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차티스트문학에 구현된 무산대중의 계급의식은 비록 당시까지 이룩된 맑스주의의 과학성과 혁명성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정신과 혁명적개조의 필요성,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무산대중의 지향과 투쟁에로의 호

소를 잘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은 물론 혁명적민주주의문학에 비해 혁명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어니스트 존즈는 서사시 《새 세계》(《힌두스탄의 봉기》)에서 자기 시대 자본주의영국의 부르조아적현실을 폭로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의 투쟁의 결과 건설된 새 사회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새 세계》의 형상들은 아름다운 미래는 오로지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는 폭동,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써만 도래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작품의 사상적내용은 이 작품이 선행한 노동계급의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 가깝게 접근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차티스트문학은 주제사상적내용의 미숙성으로 하여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서의 차티스트문학은 19세기 80년대 영국에서 활발히 창작되던 프로레타리아문학이나 그밖의 90년대 로씨야프로레타리아문학, 서유럽 여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과는 일정하게 차이난다.

19세기 80년대 영국프로레타리아문학과 90년대 로씨야프로레타리아문학은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이 널리 퍼지고 노동운동이 새롭게 양양되던 당시의 새로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맑스주의를 세계관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 근로자들의 불행한 생활처지를 보여주고 반인민적인 착취사회를 폭로비판하였으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노동자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빠리콤문문학도 콤문의 수립과 그것을 사수하기 위한 콤문투사들의 투쟁과 기백, 불굴의 의지 그리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계급의식이 강하다.

영국차티스트문학은 19세기 80년대의 프

로레타리아문학과 90년대 로씨야프로레타리아문학 그리고 빠리콤문문학과 같이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그 운동의 참가자들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차티스트문학은 당시 로동운동이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였던 역사적제한성과 이 문학의 세계관적기초를 이루고있던 무산대중의 계급의식이 로동계급의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19세기 후반기 여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높이에

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티스트문학은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차티스트문학은 로동계급이 형성되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첫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로자간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 자본주의사회를 때려부시는 투쟁으로 근로자들을 열렬히 호소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단결과 승리의 신심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계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